

# 신자유주의와 자기서사

정명중\*

## 【요약】

이 글은 개인들의 서사를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거대서사(master narrative)로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살핀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특정한 경제적 원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서사로 작동하면서 미시적인 생활 감각이나 무의식까지 점령해 왔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서사는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라는 달콤한 표면 속에 지독한 자기 계발이데올로기를 내장한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휘어잡았다. 이점에서 이 글은 오늘날의 청년들이 자기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서사가 끊임없이 조장하는 완전성(또는 독립성)의 가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완전성의 가상에서 <의존성=수치>라는 도덕관념이 산출되는데, 이 관념에 머물러 있는 한 자기부정의 헛바퀴에 빠져 자기서사의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이 글은 자기서사 구성을 위해 ‘겪음’의 사태가 가능한 감성적 장(場, field)과 같은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서 겪음이라는 낱말은 수동성, 환대, 만남(마주침)이라는 중층적인 의미맥락을 갖는다. 이점에 착안해서 이 시대 청년들이 자기서사를 만들기 위해 ‘공감장(共感場, sympathetic field)’의 구성이 절실함을 밝혔다. 아울러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임을 무릅쓰고 공감장 구성을 위해 브리콜뢰르(bricoleur)의 자세와 픽션(fiction)의 정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자기서사, 완전성, 의존성, 공감장

---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I. 들어가며 :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산다는 것

근래 꽤 잘 팔리는 한국 소설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기력하고 불안한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부르는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 헬조선은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朝鮮)에 지옥이란 뜻의 헬(hell)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곧 신분제였던 조선사회처럼 소득 격차에 따라 신분이 마치 계급 같이 고착화되는 한국 사회를 비꼬기 위해 등장한 다분히 자조적인 용어이다.

한편 유력한 경험적 현실성을 바탕으로 수저계급론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수저계급론이란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이 살아갈 삶[수저(spoon-and-chopsticks)]의 질과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론이라기 보다는 경험칙에 가깝다. 이 유사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재력이 월등한 나머지 딱히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풍족함을 향유하는 금수저, 그에 못 미치는 은수저 그리고 맨 밑에 흙수저라는 식으로 서열화 된다.

흙수저란 운이 없게도 부모를 잘못 둔 탓에 경제적 원조를 기대할 수 없는 제일 낮은 계급의 자녀들을 일컫는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 탓에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진작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산층에 대한 희망은 언감생심 이요 대개의 사람들이 최하층으로 곤두박질치는 신빈곤(the new poor)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2세대 대부분은 흙수저로 살아야 할 처지이다.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언제나 혼자인 이곳에서, 끊임없이 가해지는 자괴감과 피해 의식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모두에게 선택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에이스와 같은 삶을 나 또한 바라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섹스를 나누어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늘 혼자였고, 그런 내 곁에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머물러주지 않았다.<sup>1)</sup>

위 인용문은 어느 소설의 한 대목이다. 20대 여성 화자는 별 볼일 없는 2년제 야간대학을 근근이 다닌다. 그녀는 자신을 특별한 기술도 능력도 변변치 않은 인간쓰레기로 낙인찍는다. 그런 그녀의 독백이다. 실상 이 절망적인 독백은 헬조선을 사는 모든 흠수저들의 절규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자괴감과 피해의식,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열등감 거기에 인간적 유대의 끈을 상실한 이들 특유의 외로움까지를 불안고 사는 흠수저들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청년들의 삶과 미래는 암울하다. 그들은 미증유의 불안과 우울 속에서 허우적댄다. 만성적 정서불안과 신경쇠약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의 끈을 잃어버린 채 자의견 타의견 철저히 고립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실존은 모래알 같다. 개중 상당수는 사회적 수준에서 위생처리(혹은 탈락)될 잉여(redundancy)로 결국 전락하고 말지도 모른다.

청년들의 운명에 질게 드리운 전 지구적 수준의 암영은 향후 몇 십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sup>2)</sup> 그렇다면 구조에 대한 희망이 요원한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듯 불확실한 삶을 당분간 살아야할 청년들이 분열되고 파편화된 자신들의 삶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기반을 갖고 인간적 존엄을 확보할 자기서사(self narrative)와 같은 것을 구축할 수 있을까?

당장 그 물음에 회의적인 답을 내놓을 도리 외에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로부터 출발한다. 곧 이 시대 흠수저들은 과연

1) 김혜나 (2010), p. 213.

2) 2015년 세계은행(W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청년(15~29세) 인구 18억 명 가운데 실업자이거나 고용불완전 상태인 또는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이 6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청년 3명 중 1명꼴로 실업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인 것이다. 더구나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둔화와 양극화가 지속되는 한 청년실업 문제가 단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덧붙이고 있다.

자기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서사 구성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규범적 실천들과 조건들이 필요한가? 더불어 그로부터 과연 다른 삶‘들’의 가능성과 지평을 열 수 있는가? 사실상 이러한 물음들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액체근대(liquid modernity)의 유동성이 점령해버린 흐물흐물한 세계에서 단단하고 견고한 것, 곧 고체성과 흡사한 것을 결정화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뜻이다.

## II. 자기배려와 관계성의 최소 조건

이즈음 신자유주의 이념이 그 소용을 다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명목상 그렇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들, 특히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과 감정회로에 남겨 놓은 심대한 해악들은 앞으로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게 틀림없다.

모험과 혁신의 미덕을 내세워 가없는 유동성과 유연성을 강박했던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간적 유대의 틀을 모조리 붕괴시켰다. 사회는 그야말로 무사회(無社會) 상태의 룰도 원칙도 없는 서바이벌 각축장으로 변질됐다. 이로부터 무한경쟁에서 낙오된 자들, 즉 한없이 무기력한 계다가 감정조율 메커니즘이 심각하게 손상된 불안한 루저(looser)들이 무더기로 출현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여간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 탓에 장기적인 실업 위기에 노출된 오늘날의 청년백수<sup>3)</sup>들이, 더구나 강고한 소비주의 사회 체제의 난민으로, 궁극

3) ‘백수(白手)’란 원래 돈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백수건달(白手乾達)의 줄임말이었다. 그러나 이 말은 1997년 한국의 IMF(국제구조재금융) 외환위기 이후 무더기로 쏟아진 실업자들 일반을 지칭하기 위한 보통명사로 굳어져버린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 ‘88만원 세대’라 불리기도 했던 청년백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라는 뜻의 ‘로스제네(ロスジェネ,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취업망하기였던 1994~2005년에 신규졸업자가 돼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세대)’나 중국의 ‘개미족(蟻族, 중국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 중 학력은 높지만 취업난으로 인하여 빈곤한 삶을 사는 이들)’이 지닌 의미지평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처럼 보인다.

적으로 인간쓰레기로 취급될 지도 모를 그들이 자기서사를 구축할 수 있을까? “카펠레온 같고 변동이 심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며 불규칙한 때로는 하루살이 같은 본성”<sup>4)</sup>으로부터 온전한 자기서사의 구성이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자기서사의 불가능성을 어떻게든 그것의 가능성 쪽으로 비틀어 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정적인 문제의식이자 희망사항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기서사라는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정교한 이론적 또는 개념적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훗날을 기약한다. 대신 필자는 자기서사를 다음처럼 두 개의 맥락에서 잠정적으로 그 개념적 윤곽을 그리고자 한다.

우선 자기서사란 내 삶의 작가는 바로 나라는 관념의 토대로서 지속가능한 자기(sustainable self)라는 의식 그리고 자존(self-esteem)의 최소 조건이다. 세넷(R. Sennett)에 따르면 개인이 찰나의 감정적 혼란으로부터 평소의 감정을 보호하고 평상심을 유지<sup>5)</sup>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기라는 의식이 필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오늘날 유연한 자본주의(flexible capitalism) 세대가 텅텅의 감정과 내적 무정부 상태로 “에피소드와 단편적인 일들로 이뤄진” 조급증 사회에서 “표류하는 경험만을 양산”<sup>6)</sup>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반면 그 이전 세대는 “물질적·정신적으로 차곡차곡 쌓인 자신의 분명한 인생 스토리” 덕분에 개인들은 빈부 격차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작가”라는 “자긍심”<sup>7)</sup>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기서사는 자기에의 배려와 더불어 타자성과 공유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성의 최소 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자기에의 배려는 푸코(M. Foucault)가 말한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곧 “개인이 자기 자신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의 신체와 영혼,

4) 지그문트 바우만, 이수영 역 (2010), p. 119.

5) 리처드 세넷, 조용 역 (2014), p. 10.

6) 리처드 세넷, 조용 역 (2014), p. 33.

7) 리처드 세넷, 조용 역 (2014), p. 17.

사고, 행위, 존재방법을 일련의 작전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게”<sup>8)</sup>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 테크놀로지이다.

한편 리코르느(P. Ricoeur)는 “자기 이름으로 지칭된 행동의 주체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 전체에 걸쳐 동일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sup>9)</sup>로서 서사적 정체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서사적 정체성은 그 자체로 윤리적인데, 그 핵심은 바로 타자성과 공유성이다.<sup>10)</sup>

요컨대 자기서사란 자기의 고유함과 독창성에 대한 유아론적 집착이라는 낭만주의 신화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파편화되고 고립된 삶에 준안정적(metastable) 통일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배려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성을 구축해 나가는 삶의 기예(技藝, art)에 가깝다. 자기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앎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자기를 개방하고 변형시킴으로써 타자와 함께 삶의 다양한 선(line)들을 창조하는 잠재성들을 포착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들뢰즈(G. Deleuze)가 말하는 배움이란 앎(혹은 재인)으로 대변되는 관념적 운동성과는 본성상 다른 실천이다. 그것은 치명적인 위협을 감수하고 다질적 기호들 또는 사건들과 마주침의 공간을 형성하는<sup>11)</sup>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배움은 “경험 속에서 사물과의 만남·충돌·갈등에 의해 자의(恣意)의 세계는 동요하고 균열이 일어나며 희망적인 관측은 흔들리고 욕구나 혼돈 속에 내던져져 그 혼동이 초래하는 괴로운 시련을 거치면서 욕구나 희망이 재편성되는”<sup>12)</sup>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서사라는 용어는 아직 엄밀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거대서사(master narrative)로서 작동하는 위력적인 신자유주의에 대응

8) 미셸 푸코, 이희원 역 (2002), p. 36.

9) 폴 리코르, 김한식 역 (2004) p. 471.

10)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김유석·이승하 (2011)을 참조할 것

11) 질 들뢰즈, 김상환 역 (2004), pp. 72-73.

12) 후지타 쇼조, 이순애 편, 이홍학 역 (1999), p. 21.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전략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sup>13)</sup> 자기서사란 정상적인 의미의 삶이 불가능한 공간(space)에서 다양체(multiplicité)로서의 삶을 발명하고 창조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치의 영토성(territoriality)이라고 해두고 싶다. 또는 신자유주의적 힘에 맞서 기동전을 벌일 수는 없다하더라도, 방어전을 펼치기 위한 진지(position)와 같은 것이다.

### Ⅲ. 거대서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

신자유주의를 일종의 서사로 이해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이를테면 페르하에허(P. Verhaeghe)는 신자유주의 거대서사의 요약본을 다음처럼 제시한 바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 노리는 경쟁하는 존재이다. 그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된다. 모두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최고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는 윤리적으로도 옳다.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두는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식 경제로, 유연한 능력을 갖춘 많이 배운 인간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장이 하나면 좋고 둘이면 더 좋다. 평생 공부는 의무이다. 모두가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sup>14)</sup>

인간적 본성과 행동의 기원을 이기주의에 아니면 이타주의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여기서 그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을 주워섬기지 않겠다. 다만 위의 내용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거대서사를 다시금 두 개의 술어로 요약할

13)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서사라는 용어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문학치료학 분과에서 치료의 도구로서 제시되곤 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작문 수업 시간에 혹은 취업을 목적으로 써야했던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것 역시 그다지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4) 파울 페르하에허, 장혜경 역 (2016), pp. 128-129.

수 있다. 곧 ① 경쟁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다. ②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이기적인 인간이 벌이는 모든 경쟁은 지고의 선이라는 경쟁지상주의를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이다.

메리트크라시란 귀족주의 사회(aristocracy)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출신이나 가문 등이 아니라 능력이나 실적, 즉 메리트(merit)에 따라서 지위나 보수가 결정되는 사회체제를 말한다. 원론적으로 메리트크라시 체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러나 메리트크라시를 한 사회에 적용하려면 경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이다. 물론 이때 공정이란 기회·과정·결과의 평등이다.<sup>15)</sup>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공정을 바랄 처지가 못 된다. 물론 한국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수저계급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리얼리티를 갖고 유통된다는 점, 더구나 고질적인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 위계적인 학벌주의 등이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기회·과정·결과의 평등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사태가 이렇지만 사람들은 메리트크라시의 근본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서사는 비유컨대 당의정(糖衣錠)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곧 신자유주의 서사는 메리트크라시라는 유혹적이고 달콤한 표면 속에 지독한 자기계발 이데올로기를 내장한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휘어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 서사를 자기서사로 감아 안을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 지속적인 자기분열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유동성과 유연성의 거센 물결에 기투할 수 있는 자들만이 신자유주의 서사를 전유할 수 있다. 곧 “무질서 속에서도 견재할 수 있는 자신감”과 “방향 상실 속에서도 변창할 수 있는 강인한 기질”<sup>16)</sup>을 지닌 소수의 부유층 엘리트들만 그럴 수 있다.

---

15) 오찬호 (2016), p. 77.

반면 경제적 빈곤과 장기적인 실업 위기에서 당장의 생존이 급선무인 불안한 이들에게 자신감과 강인한 기질의 인간성 같은 것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또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서사를 전유할 수 있을까? 가상공간이라면 모를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한편 2006년 모 계간지에 『어느 청년 백수의 기나긴 하루』라는 제목의 특이한 수기가 실린 적이 있다. 취업준비 중인 글쓴이는 미래가 불투명한 자신의 심정과 챗바퀴 같은 백수의 일과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현실에서는 루저이지만, 가상의 게임 세계에서는 자신이 영웅이라며 자조인지 자부심인지 모호한 어조로 자신의 심경을 글의 말미에서 술회하는 대목이다.

나는 게임 속에서 잘생긴 미남자로 변신했다.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백수가 아니다. 칼을 들고 괴물을 배어 넘기는 영웅이며, 높은 레벨의 전사다. (...) 게임 세계는 완전한 힘의 세계다. 레벨이 높거나 귀한 아이템이 많은 이가 존경받고 사랑받았다. 물론 나는 존경 받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난 달려가서 그들이 곤란해 하는 몬스터를 물리쳐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목록으로 정해놓은 많은 사람들은 나의 공정함과 이타심에 감동하곤 했다. (...) 나는 여성캐릭터들에게도 친절하게 게임 노하우를 전수해주곤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게임 속에서 내게 친절했다.<sup>17)</sup>

위의 인용문에서 신자유주의 서사 또는 메리토크라시의 가상현실 버전을 읽어낼 수 있다. 애처로운 것은 어떻게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인정에 대한 처연한 욕구와 갈망이다. 비록 쓸모없는 자신이지만 가상공간에서나마 우월한 존재이자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이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소설 속 20대 여성 화자의 절규, 곧 자괴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열등감과 외로움을 토로했던 절규와 크게 다르지 않다.

16) 리처드 세넷, 조용 역 (2014), pp. 84-85.

17) 김신우 (2006), p. 205.

#### IV. 세대전쟁 프레임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서사는 유혹적이고 달콤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서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편집증적으로 자기를 강조하고 초점화하는 서사라는 점이다. 곧 성공과 실패란 오직 자기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자기에게 있다는 식이다.

지금껏 자기계발 외에도 자기주도니 자기경영이니 하는 말들을 우리는 술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이 자기는 삶의 구체성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탈락된 단자(monad)로서의 자기이다. 진공 상태의 자기 속에 지속가능한 자기는 없다. 타자성과 공유성을 지닌 자기서사가 구성될 가망도 없다. 단지 우월한 자기라는 자기애적 선민의 신화에 현혹되거나 열등한 자기에 대한 혐오라는 미궁에 갇히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서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루저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능력하고 열등한 자기에 대한 경멸이다. 그들은 자기를 어떻게든 부정해버리고 싶은 허무주의적 의지에 휩싸인다. 그들은 니체(F. W. Nietzsche)가 말한 슬픈 정념의 노예이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떠넘기고, 자기 안에 갇혀서 더 깊숙한 내면으로 수축해 들어가거나(이를테면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삶을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부숩버리더라도 자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망(자살충동)에 시달린다.

설사 루저들이 어떤 계기로 사회나 주위의 환경으로 시선을 돌린다 해도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자기에 대한 혐오와 부정의 의지가 증오의 감정과 폭력에 대한 갈망으로 전이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탓이다. 루저들 특유의 속수무책(束手無策, helplessness)이라는 느낌 안에는 세상에 대한 억하심정과 원한의 감정이 감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감정은 ‘원인에 대한 부적합한 관념(스피노자)’에 의해 조건만 갖춰지면 사회 파괴적인 증오의

감정으로 분출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펍 우려할만한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증오의 감정에 내재된 위협 요인들을 극화(dramatization)하는 세대전쟁 프레임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탓이다. 즉 현재 “행복한 노인과 좌절할 청년 세대의 싸움”이라는 식의 정치 전략이 힘을 얻음으로써 “세대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문제”가 세대 문제로 귀결되는 불합리함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런데 지금의 노인이나 장년 세대들은 과연 행복한가. 그에 대해 묻고 따질 겨를도 없다. “풍부한 연금 덕에 걱정 없이 사는 탐욕스러운 노인들과 막대한 연금을 채워주느라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이, 고품질의 일자리를 독점한 이기적인 기성세대와 그 때문에 입직도 못 하는 젊은이”<sup>19)</sup>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갈무리된 전도된 관념이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념이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오직 세대문제로만 초점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배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불평등한 기득권 구조를 은폐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결국 “입직의 어려움과 비정규직 문제가 대기업이나 세계화 주도 세력의 정책이나 운영방침”<sup>20)</sup>에 있다는 구조적인 원인은 간과된다.

이런 사태는 이웃 일본의 경우도 낯설지 않다. ‘로스제네’를 대표하는 청년논객 아카키 도모히로(赤木智弘)는 2007년에 『‘마루야마 마사오’의 따귀를 갈기고 싶다 : 31세 프리터. 희망은 전쟁』이라는 글로 논단에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지하듯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이자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 체제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의 따귀를 갈기고 전쟁을 거쳐서라도 사회가 완전히 리셋 상태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글이 주목을 끌었던 것도 바로 세대전쟁 프레임 영향이다. 즉 아카키는 “자신보다 윗 ‘세대’를 기득권 수익자로 간주하고

18) 전상진 (2016), p. 67.

19) 전상진 (2016), p. 77.

20) 전상진 (2016), p. 79.

기존 좌파나 리버럴한 지식인들을 기득권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젊은이를 착취하는 존재라고 철저하게 비판<sup>21)</sup>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의 서사를 블랙홀처럼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거대서사로서 출현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비단 특정한 경제원리로서 작동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서사로서 미시적인 생활 감각이나 무의식까지 점령해 왔다는 사실을 말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서사를 자기서사로 전유할 수도 없거니와 그 서사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단자화된 자기 프로파간다에 갇혀 움짱달짝 못하는 이 시대 불안한 청년들 또는 루저들의 삶이다.

이들에게 2011년 베스트셀러였던 『분노하라』의 저자 스테판 에셀(S. Hessel)과 같은 이들이 계몽주의적 어조로 각성하라고 이어 분노하고 참여해서 존엄을 찾으라고<sup>22)</sup> 설교해봐야 헛일이다. 루저들의 문제는 무관심이 아니다. 타자에게는 물론 심지어 자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쏟을만한, 즉 유대의 감정적 또는 심리적 토대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 V. 완전성의 가상에서 벗어나기

메리토크라시 체제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우리는 자기 계발하는 주체여야 한다. 이 주체는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면서 언젠가는 완전한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지녀야 한다. 설사 그 도달의 시점이 매번 유예된다 해도 상관없다. 자신의 잠정적 미성숙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적인 자기의 완성을 향해 자신을 채근해야 한다. 이때 과거는 필요 없고, 현재는 도래할 미래를 위해 언제나 부정되는 게 마땅하다.

일종의 자기 진화론인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의 핵심에는 완전성에 대한

21) 모리 요시타카, 심정명 역 (2003), p. 221.

22) 스테판 에셀, 임희근 역 (2011), pp. 21-22.

가상이 놓여 있다. 그런데 이 완전성의 가상으로부터 독립적 인간과 의존적 인간이라는 식의 대조적 인간 유형이 범주화된다. 그리고 그 범주에 독립성은 올바른 것, 반면 의존성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가치판단 기준이 따라 붙는다. 이어 의존성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도덕관념이 산출된다. 이러한 도덕관념이 갖는 심각한 폐해는 존재론적 또는 실존적 조건인 취약성(vulnerability)을 인간성의 목록에서 아예 삭제하려 든다는 점이다.

마사 너스바움(M. Nussbaum)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취약한 동물”<sup>23)</sup>로 정의한다. 곧 인간이란 근원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다. 삶의 전반을 대체로 무능력한 상태로 살며,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약하기 때문이다. 간절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유한한 동물에 불과하며 영원불멸의 존재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sup>24)</sup>

이러한 인간적 취약성을 부정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일어난다. 예컨대 사회에서 지배집단은 “자신이 지닌 동물성과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과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집단이나 사람에게 혐오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을 배제하고 주변화해”<sup>25)</sup>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너스바움은 인간성 곧 취약성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마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전능함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되려 불행의 단초였음을 각성하고 완전함을 “과도하게 추구하지 않는 시민”<sup>26)</sup>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그러한 사회적 이상은 실현되기 어렵다. 인간의 취약성을 부인하고 배제하는 최악의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체제인 탓이다. 취약성과 그 귀결인 의존성은 결함이나 수치로 이해된다. 심지어 나태함과 기생성의

23)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2015), p. 24.

24)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2015), p. 75.

25)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2015), p. 37.

26)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2015), p. 42.

발로로 해석된다. 타인의 도움에 의존한다는 것, 이를테면 사회복지 시스템의 수혜를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만다.

따라서 개인들은 결코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어떻게든 극복 혹은 은폐하고 완전한 자기의 이상에 도달해야한다. 아니,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도달해 가고 있다는 자기암시를 편집증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부단히 움직이면서 자신의 결점을 모조리 지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문법이자 서사이다. 이 서사를 거스르면 우리는 불필요한 사회적 기생충, 곧 남아도는 것으로서 또는 사회적 과잉으로서 사회적 공공지출을 쪼먹는 잉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sup>27)</sup>

앞서 타자에게는 물론 자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쏟을 수 있는 유대의 감정적·심리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상실됐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이는 환언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 구조”가 “사람들 사이에 애정이 없는, 공허한 신뢰 부재의 상태”<sup>28)</sup>를 낳았다는 말과 같다. 즉 <의존성=수치>라는 도덕관념이 지배하는 한 사회에서 신뢰의 감정이 뿌리내리기는 어렵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빈곤해진다는 것은 홉스(T. Hobbes) 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homo homini lupus)인 자연 상태로 퇴행한다는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 서바이벌 공간에서 연대라거나 보살핌(care)의 미덕은 솟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완전성의 가상을 벗어야 한다. 이어 <의존성=수치>의 도덕관념을 깨뜨려야만 유대의 감정적·심리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1980년 광주 5월 열흘간의 항쟁을 다룬 소설, 곧 ‘5월항쟁 실록(實錄)’이라 불리는 임철우의 장편소설 『봄날』 제3권의 일부이다.

한기는 아예 고향을 지르듯 목청을 올린다. 이 친구는 어째 이리 뭐든 막무가내인지 모르겠다고 무척은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다. 사람

27) 지그문트 바우만, 이수영 역 (2010), p. 127.

28) 리처드 세넷, 조용 역 (2014), p. 207.

이 솔직한 건 좋은데, 무슨 일이건 이쪽 눈치는 아랑곳없이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만 행동하는 점이 문제였다. 그 때문에 한기를 대하면 내심 불안하고 부담스러워지곤 한다. 가령 이런 경우, 솔직히 내키지 않지만 무석으로서의 달리 도리가 없다. 한기의 성격을 익히 아는 터라, 티셔츠 위에 잠바를 걸치고 따라나섰다.

“칠수는 어디 가고, 자네 혼자뿐인가?”

“칠수새끼, 밖에서 시방 기다리고 있소. 봉배도 마침 없고 해서, 들어서 그냥 식당에 가서 국밥이나 먹을까 하는 참인데, 무석형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 올라온 거요. 어때요? 내가 이래봬도 참, 의리 하나 빼볼면 시체요 시체. 으흐.”

“그래, 고맙네. 거참.”

한기 능청에 무석도 덩달아 따라 웃고 말았다. 늘상 소란스럽고 행동이 거친 구석이 있긴 해도, 한기는 넉살이 좋을 만큼이나 소탈하고 선량했다. 칠수 역시 한기와 비슷한 성격이었다.(강조 : 인용자)<sup>29)</sup>

주인공 ‘무석’이 진압군인 공수부대원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한 후에 방에 혼자 앓아 누워있는데, 동료인 ‘한기’와 ‘칠수’가 그를 찾아온 장면이다. 그들은 무석이 몸이 심하게 상한데다 배까지 곱고 있을 것을 염려해 일부러 방문하던 차다.

이 인물들은 뚜렷한 직업도 없이 날뎠팔이로 근근이 생계를 연명하는 전형적인 도시 롬펜(lumpen)들이다. 딱히 가진 것도 의지할 곳도 없는 별거숭이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그들 중 한기라는 인물이 무석에게 너스레를 떨며 “내가 이래봬도 참, 의리 하나 빼볼면 시체요.”라고 말하는 대목을 눈여겨보자. 여기서 핵심은 의리(義理)라는 단어이다. 의리란 굳이 풀이하자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정도가 되겠지만, 동아시아 지적 전통에서 그 의미 지평이 간단치 않다. 한편 최정운은 5월 광주공동체의 성격을 논하면서 다음처럼 인상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29) 임철우 (1997), pp. 93-94.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치 않는 유일한 관계는 친구였고 시민군들은 친구 관계를 조직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없이 자신의 몸뚱이와 친구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기층민 시민군들은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시민군으로 남아 있려 했다.<sup>30)</sup>

세파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우정이라는 것이 오늘의 세태에도 들어맞는 것인지는 판단유보다. 다만 항쟁 당시 시민군의 상당수를 이뤘던 기층민, 곧 혈혈단신의 룬펜 무리들이 자신의 몸뚱이와 친구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는 친구에게 자신의 취약성을 내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굳이 부끄러워할 이유조차 없는 그런 관계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자본은 물론 변변한 학력자본이나 문화자본조차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고 사회적 인정 시스템에서 배제된 자들, 곧 어떻게 해도 재현·대표(representation)되지 않는 사회적 잔여(leftover) 또는 비(非)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인정 시스템의 그야말로 바깥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결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상호인정 체계에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놓았던 셈이다.

## VI. 공감장의 재구성을 위하여

그렇다고 불현듯 이 시점에서 의리의 공동체 같은 것을 구성하자거나 복원하자는 식의 선부른 공동체주의를 강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의존성=수치>의 도덕관념이 결코 작동되지 않을 감성적 장(場)을 어떻게든 형성해 나가는 게

---

30) 최정운 (2012), pp. 248-249.

오늘날 절실하다는 점을, 그리고 그러한 장들이 광주 5월 항쟁이라는 삶과 죽음이 겹치는 절체절명의 공간에서 솔하게 출현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싶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의리의 공동체가 어떤 단일한 신념이나 신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들은 어떤 ‘겪음’의 사태가 가능한 장에서 <의존성=수치>의 도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한국어 ‘겪다’ 또는 그것의 명사형인 겪음이 지닌 의미맥락의 중층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겪음은 수동성(passivity)을 내포한다. 우리는 고통이나 재난을 겪는다고 표현한다. 다음으로 이 겪음은 환대(hospitality)의 의미를 함축한다. 사람들을 청하여 음식을 차려 대접한다고 할 때 보통 손님을 겪는다, 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만남 또는 마주침(encounter)의 의미가 있다. 사람을 사귀어 지내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겪어내다, 라고 말하곤 한다.

앞서 소설 『봄날』의 인용 대목을 다시 떠올려보자. 무석은 한기의 막무가내인 행동거지와 지나치게 자기 위주의 성품이 불안하고 부담스럽다. 사전에 말도 없이 자신을 불쑥 찾아 온 것도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내키지는 않지만 자신을 염려해서 찾아온 그를 따라 나선다. 결국 불편한 심기는 한기의 능청과 너스레로 이내 풀리면서 무석도 웃는다. 이어 무석은 그를 선량한 사람으로 여긴다.

이 감정의 선들은 무척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이 마주치고 버무려짐으로써, 곧 겪음의 사태에 놓임으로써 그들은 <의존성=수치>의 도덕관념을 탈피하고 나아가 저항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어쨌든 유대와 결속을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수동성, 환대, 마주침이라는 중층적 의미를 포괄하는 겪음의 사태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사람은 서로 겪다보면 친밀해진다는 식의 상식적인 통념을 반복할 의도는 없다. 세넷은 스미스(A. Smith)의 『도덕감정론』에 기대 공감(共感)이란 “갑작스럽게 표출되는 감정이지만 즉흥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저항과 인식의 오류를 거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표출되는 것”<sup>31)</sup>이라고 했다. 즉 공감이란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저항(혹은 갈등)이나 인식의

오류를 거친 다음에 그야말로 ‘사후(事後)’에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는 감정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부추기는 단자화된 자기 프로파간다에 갇혀 있고, 게다가 상호 관여됨(혹은 거치적거림)의 자질을 함축하는 관계(relation)보다는 연결하기와 끊기가 쉬운 네트워크(network)를 선호하는<sup>32)</sup> 흐름에서 공감의 ‘사전적(事前的)’ 기초조차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연고사회(無緣故社會)에서 사람들 상호간에 감정적 갈등이나 인식적 오류를 거칠 일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선언적임을 무릅쓰고 이렇게 주장하고자 한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것은 “공감의 발생적 조건이자, 상이한 공감들이 마주치고 투쟁하는 관계의 망”<sup>33)</sup>으로서 ‘공감장(共感場, sympathetic field)’을 복원하거나 재구성 하는 일이다. 그래야 비로소 공감장 안에서 완전성의 가상에서 벗어나 <의존성=수치>의 도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감정적·심리적 유대의 틀을 복원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태로건 공감장 또는 공감(들)의 장(the field of sympathies)을 전제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기서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감장이란 파편화되고 고립된 삶에 불안정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배려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성을 구축해 나가는 삶의 기예가 펼쳐지는 장소(topos)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질적인 기호들 또는 사건들과 마주치고 시련을 거쳐 욕구나 희망을 재편성함으로써 다양체로서의 삶을 또는 삶의 다양한 선들을 발견(혹은 발명)하고 창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31) 리처드 세넷, 조용 역 (2014), pp. 209-210.

32) 지그문트 바우만, 권태우·조형준 역 (2013), pp. 24-25.

33)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원 (2017), p. 11.

## VII. 픽션 또는 브리콜뢰르의 정신

지금껏 불안하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자기서사를 구성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언급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글에서 자기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는 향후 다양한 실제적 또는 경험적 사례들을 훑어보고 분석한 이후에야 가능하지 싶다. 대신 삶이 불가능한 공간에서 어떻게든 삶‘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부터 추상적이고 관념적임을 무릅쓰고 약간의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한 청년이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저항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꽤 비관적인 이야기가 있다. 바로 장강명의 소설 『표백』의 줄거리다. 그리고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

표백 세대는 지배 이념에 맞서 그들을 묶어주거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이념이 없으며, 그렇기에 원자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낙원’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이상향은 있을 수 없기에, 표백 세대는 혁명과 변혁에 관한 한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다. 이들은 사회를 비난할 권리조차 박탈당한다. 완성된 사회에서 표백 세대의 실패는 그들 개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귀결된다.<sup>34)</sup>

요컨대 자신들을 묶어주거나 대변할 수 있는 이념조차 없기에 원자화 된 오늘날의 청년들은 표백세대(漂白世代)라는 것이다. 혁명과 변혁조차 불가능한 완성된 사회에서 청년들의 실패는 오직 그들 탓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문제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제품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 자살을 선언한다는 것인데 서사적으로야 용인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극단적인 게 사실이다.

34) 장강명 (2011), p. 199.

일본 로스제네의 대표 청년논객 아카키 도모히로가 따귀를 갈겨주고 싶었던 바로 그 마루야마 마사오는 이른바 근대정신의 일종으로 픽션(fiction)의 정신을 언급했다. 이때 픽션의 정신이란 인간의 지성적인 제작 활동을 거쳐 만들어진 제작물을 자연적 실재(성)보다 우위에 두는 정신의 태도이다. 곧 질료(matter)보다는 언제나 형상(form)의 우선성 속에서 자연적·감각적 실재성을 걷어내면 낼수록 픽션의 정신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sup>35)</sup>

그런데 표백세대라는 규정이 함축하는 것은 세계란 이미 완전태(完全態, entelechy)여서 가감이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한계 의식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한계의식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자연(운명) 상태로 둔갑시키는 정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념 안에 “세계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되어야 할 대상”<sup>36)</sup>이라는 지성적 관념은 증발하고 없다. 사회라는 자연적 실재성에 압도되어 형상성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삶을 만들어간다는 또는 자기서사를 구성해 간다는 착상은 사라지고 만다. 대신 자기를 파괴함으로써 사회에 복수한다는 식의 원한의 감정만 도드라질 뿐이다. 이미 밝혔듯 이는 신자유주의 서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나 단자화된 자기 프로파간다에 갇힌 이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다.

언젠가는 바라마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지녀야 한다는 공허한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설사 사회가 난공불락의 자연적 실재성으로 육박해 오더라도 그것을 형상이 개입되어야 할 질료로 파악하는 픽션의 정신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주체들에게 픽션의 정신이란 게 가당찮은가? 사실 이는 그런 그들이 자기서사와 같은 것을 과연 구성할 수조차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금 말하자면 불가능성을 가능성 쪽으로 어떻게든 비틀어 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자 희망사항이다.

35)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7), p. 435.

36) 요시다 도우루, 김상운 역 (2015), p. 36.

좀 더 거창하게 말해서 삶이 저항과 더불어 비로소 도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숙소-없는’, ‘신분증-없는’, ‘직업-없는’, ‘소유지-없는’ ‘아무 능력-없는’”<sup>37)</sup> 저항 속에서이다. 그리고 멘케(C. Menke)를 따라 말하자면 또 다른 삶이란 결국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음”<sup>38)</sup>이라는 예술가적 실천 속에서 솟아날 수밖에 없다. 한편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 Levi Strauss)는 『야생의 사고』에서 브리콜라주(bricolage)로서 신화적 사고의 특성을 규명하면서 ‘브리콜뢰르(bricoleur)’, 곧 ‘손재주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오늘날 ‘브리콜뢰르(bricoleur)’는 아무 것이나 주어진 도구를 써서 자기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에 대비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 이 ‘손재주꾼’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엔지니어와 달라서 그 일의 목적에 맞게 고안되고 마련된 연장이나 재료가 있고 없고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의 세계는 한정되어 있어서 ‘손쉽게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승부의 원칙이다. 말하자면 그가 갖고 있는 도구와 재료는 항상 얼마 안 되고 그나마 잡다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저 주어진 것들의 내용은 현재의 계획이나 또 어떤 특정한 계획과 관련되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때고 종전의 파손 부품이나 만들다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본래 모습을 재생시키는가 하면 완전히 새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손재주꾼’의 도구와 재료라는 것은 잠정적 용도로 박엔 정의할 수가 없다. 이것을 ‘손재주꾼’ 자신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부품을 수집하여 갖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든지 쓸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품들은 극히 세분화되어서 ‘손재주꾼’이 모든 업종에 대한 지식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그 부품들이 단번에 정확히 쓰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각 부품은 실제적이면서도 가능한 관계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그 부품들은 ‘조작매체(opérateur)’이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조작에라도 쓸 수 있는 매체이다.<sup>39)</sup>

37) 다니엘 벤사이드, 김은주 역 (2003), p. 43.

38) 크리스토프 멘케, 김동규 역 (2013), p. 149.

39) 레비 스트로스, 안정남 역 (1996), pp. 70-71.

요컨대 원시사회의 문화제작자인 브리콜리르는 제한된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변통에 능한 사람이다. 그는 파손된 부품이나 만들다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도 본래의 모습을 재생시키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레비 스트로스의 묘사가 삶의 불가능성과 비극성 속에서 어떻게든 픽션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서 우리가 전유해도 좋을만한 지점을 환기시켜준다는 점일 것이다. 필자는 브리콜리르에 관한 이 묘사에서 이른바 다중(multitudo)의 ‘예술가-되기(devenir)’라는 실천적 강령의 단초를 읽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 VIII. 나오며

이 글은 오늘날의 청년들이 분열되고 파편화된 자신들의 삶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기반을 갖고 인간적 존엄을 확보할 자기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한편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서사란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다만 푸코가 말한 자기에의 배려 또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함축하는 것이자 동시에 리피르가 언급한 바 있는 서사적 정체성의 맥락에서 타자성과 공유성을 아우르는 잠정적 용어이다.

우선 이 글은 신자유주의가 개인들의 서사를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거대서사라는 관점에서 그것의 폐해를 살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서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서사가 끊임없이 부추기는 완전성의 가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완전성의 가상에서 <의존성=수치>라는 지배적인 도덕관념이 산출되는데, 이 관념에 머물러 있는 한 자기부정의 쳇바퀴에 걸려들 뿐 자기서사의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편 이 글에서는 자기서사를 구성하기 위해 겪음의 사태가 가능한 감성적 장(場, field)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 겪음이라는 낱말이 수동성, 환대, 만남(마주침)이라는 중층적인 의미맥락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시대 청년들이 자기서사를 만들기 위해 공감장의 복원 또는 재구성이 요청됨을 밝혔다. 아울러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논의를 무릅쓰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공감장 구성을 위해 픽션 또는 블리콜뢰르의 정신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 참고문헌

- 김신우 (2006), 『어느 청년 백수의 기나긴 하루』, 『황해문화』, 50: 198-205.
- 김혜나 (2010), 『제리』, 서울: 민음사.
- 오찬호 (2016),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유석·이승하 (2011), 『서사적 정체성의 현대적 의의』, 『인문과학연구』, 29: 29-49.
- 임철우 (1997), 『봄날』 제3권, 서울: 문학과지성사.
- 장강명 (2011), 『표백』, 서울: 한겨레출판.
-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원 (2017),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 감성인문학서론』, 서울: 도서출판 길.
- 전상진 (2016), 『비참한 청년과 화려한 기성세대?: 청년성과 ‘세대게임’』, 강명구·김홍중·신혜선 편, 『한중일 청년을 말한다』, 서울: 진인진.
- 최정운 (2012), 『오월의 사회과학』, 서울: 오월의 봄.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서울: 한길사.
- 모리 요시타카, 심정명 역 (2013), 『스트리트의 사상』, 서울: 그린비.
- 요시다 도우루, 김상운 역 (2015), 『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서울: 바다출판사.
- 후지타 쇼조, 이순애 편, 이흥학 역 (1999),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서울: 창작과비평사.
- 다니엘 벤사이드, 김은주 역 (2003), 『저항 : 일반 두더지학에 대한 시론』, 서울: 이후.
- 레비 스트로스, 안정남 역 (1996), 『야생의 사고』, 서울: 한길사.
- 리처드 세넷, 조용 역 (2014),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서울: 문예출판사.
-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2015),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 미셸 푸코, 이희원 역 (2002), 『자기의 테크놀로지』, 서울: 동문선.
- 스테판 에셀, 임희근 역 (2011), 『분노하라』, 서울: 돌베개.
- 지그문트 바우만, 권태우·조형준 역 (2013), 『리퀴드 러브』, 서울: 새물결.
- 지그문트 바우만, 이수영 역 (2010), 『새로운 빈곤』, 서울: 천지인.
- 질 들뢰즈,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크리스토프 멘케, 김동규 역 (2013), 『미학적 힘 : 미학적 인간학의 근본 개념』, 서울: 그린비.

파울 페르하에허, 장혜경 역 (2016),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서울: 반비.  
폴 리콰르, 김한식 역 (2004), 『시간과 이야기 3』, 서울: 문학과지성사.

## Abstract

This paper looks into the harm inflicted by neoliberalism from the viewpoint that neoliberalism is a master narrative that absorbs all individual narratives like a black hole. The neoliberalism narrative won people over with a fierce self-development ideology embedded under the surface of sugarcoated meritocracy. This paper emphasizes that, to establish their self-narrative, young people should effectively get away from the myth of completeness (or independence), which is constantly encouraged by the neoliberalism narrative. This myth of completeness produces a dominant moral notion “dependence=embarrassment,” and this paper explains that, as long as they continue to believe in this notion, young people will be stuck in the hamster wheel of self-denial and it will be impossible for them to establish their own self-narrative.

Meanwhile, this paper emphasizes that some kind of emotional field(場), where young people can “experience,” should be provided first, before they establish their own self-narrative. In Korea, the word “experience” has a multi-layered meaning of “passivity,” “hospitality,” and “encounter (running into someone).” From this analysi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i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a “sympathetic field(共感場)” for today’s young people to create their own self-narrative.

**【Keywords】** Neoliberalism, Self-narrative, Completeness, Dependence, Sympathetic Field

논문 투고일: 2017. 8. 31

심사 완료일: 2017. 10. 9

게재 확정일: 2017. 10. 9